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空氣없이 물에 뜨는 衣服 發明人

삼보무역상사 姜 亨 權 회장



〈姜 亨 權 회장〉

39년전 6.25戰爭속에서 임태한 아이디어가 드디어 發明으로 연결되어 發明企業人을 誕生시켰다.

8240遊擊隊출신인 삼보무역상사 姜亨權회장. 그는 6월이 오면 먼저간 戰友들에 대한 죄스럼에 밤잠을 못이룬다.

그래서 發明한 것이 空氣없이 물에 뜨는 衣服.

姜회장이 이 發明을 결심한 것은 1950년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지요. 저희 8240遊擊隊는 愛國靑年들을 중심으로 뭉쳐진 非正規軍으로 장비라곤 배 몇척이 고작이었는데 적의 습격을 받아 산산조각이 되어 버렸지요. 이때 수많은 戰友들이 무참히 희생되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戰友들은 드럼통·배의 파편·초가집 문짝등을 타고 渡江하다 대부분이 凍死했지요.』

이에 따라 물에 뜨는 衣服의 發明을 결심했으나 적당한 素材를 찾지 못해 그만 38년의 세월이 흘러 버렸다고 말하는 姜회장. 그는 그날의 惡夢이 되살아 나는듯 눈을 지긋이 감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姜회장이 發明한 이 衣服은 多目的으로 작업복은 물론 스키복·구명복·등산복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 衣服의 素材인 石油化學製品은 저렴한 生産價로 대량 生産이 가능하며, 3백g으로 1백30kg의 物體를 물에 띄울 수 있는데, 空氣와 무관하여 素材가 찢어지고 구멍이 나더라도 浮力에는 관계가 없으며, 防寒효과 또한 크다.

이 發明을 위해 1억원이 넘는 研究費를 投入해야 했다는 姜회장. 그는 이 發明과정에서 유사품이 나돌아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삼보무역상사를 설립, 국내 시판은 물론 英國·美國·日本·프랑스에 輸出도 가능하게 되었다.

姜亨權회장. 그는 뉴욕 및 제네바 國際發明展에서 准대상과 은상을 수상, 이제 世界的 發明企業人으로 손꼽히고 있다.

〈※〉